# 즉시삭제, 법률·심리상담… 딥페이크 '스쿨 핫라인' 구축

**서울교육청, 불법합성물 긴급 대응**
**서울시·교육청·검찰청 등 협약식**
**학교로 찾아가 안심지원센터 연계**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학교 구성원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즉시 삭제'와 더불어 법률·심리상담 등 '원스톱 통합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합성물 긴급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장 이창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봉식)과 10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 딥페이크 즉시 삭제 지원과 더불어,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시작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온 안심지원센터 전문상담원에게 딥페이크 즉시 삭제, 법률·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교육청 내부 긴급 대응 TF를 구축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서울시교육청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후에도 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요령을 학교와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교 학교장 및 전문상담(교)사,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학생지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유튜브 송출된 연수에는 1000명 이상이 접속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매년 1000학급 10여만 명 이상(4년간 누계 약 500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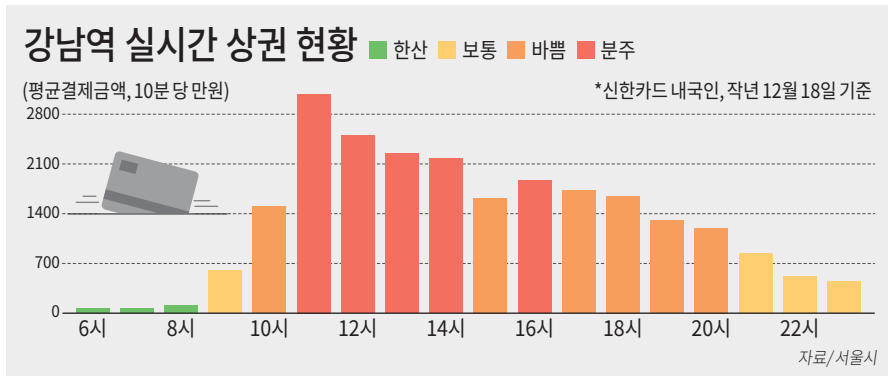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을 추가로 개발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딥페이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피해 발생 시 불법합성물 삭제와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핫한 동네, 붐비는 시간 다 알려드려요"

**서울시, 주요 상권 80곳 실시간 공개**
**날씨·문화행사 등 정보 통합 서비스**
**업종·시간별 결제 트렌드 등 제공**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관내 주요 명소의 현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고도화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는 인구, 도로 소통 상황, 날씨, 문화 행사 등의 정보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데이트로 실시간 상권 정보와 지하철 승강기 공사 정보가 추가했다. 실시간 상권 정보는 신한카드와 협업해 서울 시내 명소 116개소 중 80곳의 15분 전 카드 데이터를 집계·분석한 자료다. 특정 상권의 업종별 결제 트렌드와 붐비는 시간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가 업종별 결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평일 강남역의 경우 정오와 밤 7시 전후로는 한식 업종 소비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병원 업종의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류 소비는 오후 4시 이후로 증가해 저녁 시간 전후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며, 유흥 소비는 밤 10시 이후 주로 발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권별 가장 분주한 시간대를 살펴보면, 직장인 밀집 지역인 명동 관광특구,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역은 평일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주중 최대 소비가 일어나 가장 분주했다. 쇼핑 중심 지역인 동대문 관광특구,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거리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주중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다. 유흥과 먹거리 밀집 지역인 홍대 관광특구, 건대입구역은 주말과 공휴일 저녁 시간에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풍부하게 확장되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시민, 관광객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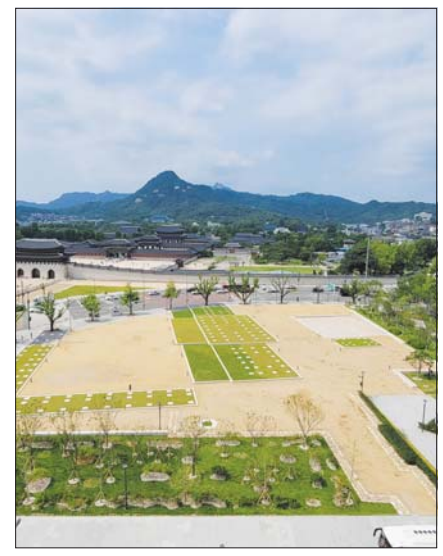
12일 정식 개장… 축하공연 등 진행

서울시는 조선시대 최고 관청이었던 '의정부(議政府)' 터를 1만1300㎡ 규모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해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의 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관으로,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시민들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조선시대 국정의 중심지였던 의정부 건물 5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 내행랑, 정자)과 연지, 우물 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일 오후 7시 10분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개장식을 갖는다. 역사 토크 콘서트,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전경. /서울시

시는 개장식 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말 저녁에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무형유산 관련 전통 행사와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남양주 다산신도시 미금로' 차로 확장

경기주택도시공사, 2차로 → 4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는 10일 다산신도시의 관문도로인 미금로의 차로 확장(2차로→4차로)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의 주요 진출입 도로인 미금로는 왕복 2차로의 협소한 도로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및 병목현상으로 교통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최근 다산신도시의 입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차로 확장등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는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재원 분담 방안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미금로 확장사업을 내놓았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개발만하고 빠져 나가는 빌더(Builder)가 아니라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도 사업시행자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을 적극 해결하는 타운매니져(Town Manager) 역할을 다하겠다고 GH측은 전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미금로 확장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해 다산신도시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겪고있는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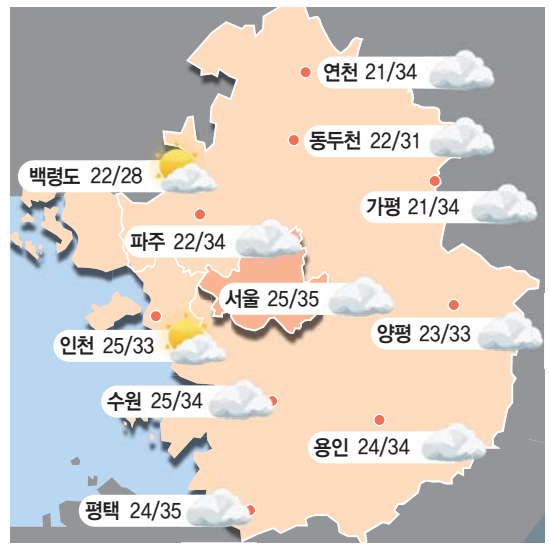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뜸 / 06:11 | 해짐 / 18:46

9월
11일 (水)
음력 : 8월 9일

수도권 날씨
25~35℃

| | |
|---|---|
| 운동 지수 | |
| 빨래 지수 | |
| 세차 지수 | |
| 외출 지수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中관광지서 일본인 관광객 봉변 외국인 혐오 잇따라
▲중국서 첫 자국산 엠폭스 백신 임상시험 시작 /사진 뉴시스

▲베트남서 태풍 '야기'로 98명 사망 올해 亞서 가장 강력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부 군수 창고 공격 서방이 허용해야"

▲日연립여당 야마구치 대표 15년만에 퇴임
▲'고령 공세' 역풍 직면한 트럼프, TV 토론 시험대 /사진 뉴시스